

대구주보

친교로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죽일,
가정 성화 주간

2023. 12. 31. (나해) 제2409호

소리주보QR코드



5대리구 선산성당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주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단계서실 83-2 문의 | 054)481-7400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seonsan82>

1962년 4월 5일 설립되었으며 예수 성심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1969년에 해평성당을, 2003년에는 고아성당을 분가시켰으며 2009년 6월 14일에 새 성전을 봉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O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2,22-40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가정은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



근화여자고등학교 교목실장 | 주요한 사도요한 신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말처럼 가족은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이지만, 때로는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작은 서운함이 쌓여 오해가 생기고 결국 얼굴을 돌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로마 건국신화에도 형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살해합니다. 그리스신화, 희극 등에서 형제간의 반목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안싸움이라는 어쩌면 진부한 주제는 오늘날에도 드라마, 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에 가장 쉬운 관계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가정은 그 사람의 어떠한가, 곧 외모나 성격, 재능, 재산 등에 의해 인정받고 사랑받는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인정받고, 성적을 잘 받아야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내 존재의 ‘있음 그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설 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화장을 지우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드러눕습니다. 가정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가정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꾸며진 내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내 존재 그 자체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구원을 연습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삶든 대부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틀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각자 노력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수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가정 축일이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수련하며 구원을 만나는 연습을 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태 영성을 배우고 기후 위기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 눈뜨게 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주변으로 나가라.’고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를 내가 사는 ‘대구’와 ‘우리 동네’에서 실천하기 위해 대구 쪽방촌과 대명 9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수녀원 근처에 쪽방촌에서 독립한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반찬을 만들어 그분들을 찾아가는 ‘평화 나눔’을 시작한 지 3년이 흘렀다.

처음 방문했을 때, 직접적으로 수녀를 만난 건 처음이라 대부분 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나 의아해하셨지만 가끔 전화도 드리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다. 평소엔 밑반찬을 나누어 드리지만 큰 축제일엔 특별한 음식을, 계절에 따라 여름엔 삼계탕을 끓여드리기도 하고 가을엔 가을빛 가득한 수녀원 정원으로 삼삼오오 초대해서 짜장면을 함께 먹기도 했으며 겨울엔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나누면서 점점 정이 들어감을 느끼고 있다.

먼 곳까지 가서 폐지를 줍는 분을 위해 수녀원 마당 한쪽에 폐지를 쌓아두기도 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집에만 계셨던 분이 용기를 내어 중학교 과정에 다니시면서 겪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늘 먼저 전화하다가 처음으로 어느 형제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와 안부와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행복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비좁은 쪽방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살다가 혼자 따로 살게 되면서 몸은 편하지만 외로움과 우울증이 심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셨다. 2년 전 겨울에는 직접 만든 봉어빵을 드리러 갔을 때 고관절 수술로 입원한다고 기도를 부탁하셨던 형제님이 수술 후 1주일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알아보니 병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에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일 이후 형제님들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불안함도 생겼다. 이분들을 통해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은 바로 우리가 ‘이웃 가족’이 되어가고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는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소외되는
가난한 이들의 생존 문제라고 말한다.

우리가 전기를 아끼고 소비를 줄이는 작은 행위들도 가난한 이웃의 생존권을 위한 가치 있는 연대이지만, 동시에 그들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연결된 우리는 서로가 곁에 있는 이웃이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살아 나가야 할 동반자임을 잊지 않고 새해에도 평화 나눔의 발걸음을 기쁘게 이어갈 것이다. **필문**



교황, “상업화·소비주의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합시다”

바티칸 소식

2023년 12월 16일 바티칸 뉴스 | 번역 박수현

“오래고도 늘 새로운”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는 유일 무이함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나 소비주의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전통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음색”으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16일 바오로 6세 홀에 딸린 접견실에서 교황청립 ‘교육의 중대성’(Gravissimum Educationis) 재단이 후원하는 31번째 성탄 콘서트에 참석한 예술가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말했다. 아울러 그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땅”을 비롯해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지역을 생각하며 노래하라고 당부했다.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유일무이하지만 한 가지 방식으로, 확실히지만 노래하면 안 됩니다. 기술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다르며, 성탄 캐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술로 불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성탄 캐럴이 이러한 상업화와 소비주의 모델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적어도 성탄 캐럴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적 감성과 자발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캐럴 “주님께서 별에서 내려오신다”의 사례
교황의 연설은 이날 오후 교황청립 ‘교육의 중대성’ 재단이 후원하는 31번째 콘서트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술가들에게 향했다. 이 콘서트는 로마 보르고 지구에 있는 콘서트 홀 ‘콘실리아치오네 아우디토리움’

에 저명한 예술가들을 초청해 무대를 꾸민 것으로, 성탄절 밤 이탈리아 민영방송 ‘카날레친퀘’(Canale 5)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연설에서 교황은 “대중가요”가 “모든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단순하지만 신학과 조화가 어우러진 걸작으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주님께서 별에서 내려오신다’(Tu scendi dalle stelle)”를 인용했다. 이 곡은 이탈리아의 가톨릭 교회학자 겸 영성작가, “성탄의 위대한 가수”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가 작곡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와 기도문을 노래의 형태로 전해왔습니다. 특히 일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외워서 부르는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과 결합된 가사는 여러 가지 감정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이들을 생각합시다

교황은 분쟁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현재 전쟁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를 지키고 노래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복을 보냅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5년

보두네 신부 선종

5월 17일 월요일

몸이 쇠약해진 줄리앙 신부가 급행열차 편으로 도착했다. 카넬 신부가 편지를 보내면서 후방의 이동야전병원에 있다고 알려왔고, 카닥스 신부의 편지도 왔는데, 그는 자원해서 텐진으로 파견되었다.

5월 22일 토요일

성영회에 대한 급여금이 작년의 1/3로 줄었다는 소식을 오늘 저녁에 받았다. 그 대신에 나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수녀들이 따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5월 23일 성신강림첨례

부활절 때와 같았다. 페네 신부로부터 아주 좋은 편지가 왔다.

5월 24일 월요일

베르모렐 신부가 전보로 병에 걸린 보두네 신부에게 불러 갔다고 간단히 알려왔다. 영천(永川)에서 악대를 동반한 큰 학교 축제가 있었다. 신학교 별장이 건설될 만한 대지를 물색했다.

5월 25일 화요일

베르모렐 신부의 편지가 왔다. 보두네 신부가 심한 소화불량을 일으켰는데, 위중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5월 27일 목요일

오늘 아침 미알롱 신부의 편지가 왔다. 위험이 사라졌으므로 베르모렐 신부는 돌아갔고, 미알롱 신부도 뤼카 신부를 전주에 남겨 두고 곧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 그리고 나서 10시에 “보두네 신부 임종 중”이란 전보가 왔다. 나는 오후에 예정된 서품식 때문에 약간 망설였으나 급행열차 편으로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9시 30분에 이리에 도착해서 자동차를 구해 타고 11시에 전주에 도착했다. 신부는 이미 아침 10시에 운명했다. 나는 제의를 입고 교우들에게 둘러싸여 누워있는 시신 옆에서 기도를 했다. 나는 신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미알롱과 뤼카 신부, 그리고 나보다 약간 먼저 도착한 베르모렐과 김 스테파노(金洋洪) 신부를 만났다.

제23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

'혼인적 사랑' - '참된 어른'으로 초대 -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주교의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부제서품식

2024.1.9(화) 10:00 / 주교좌 범어대성당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 캘린더(월간 계획) 판매

판매 5,000원(배송료 별도) 구입 월간빛 250-3157~8

* 전례력은 물론 교구의 사목계획에 따른 주요 일정까지
수록되어 있어 교구민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12월 성탄의 기쁨이 있는 달

생태적 미래

..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며, 내가 머무는 공간 정리하고 나눔 실천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 농어민사목부 제공

가정이 화목하려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1월 1일 월요일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없습니다.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월 6일(토) 10:30 월배성당
성체조배회 회원을 위하여	1월 6일(토) 10:00 지산성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1월 6일(토) 11:00 앞산밀복카페(4층)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6일(토) 10:00 월성성당		

수도회 | 피정

겨울 청년 피정

기간: 1.12(금) 15:00~14(일) 15:00

장소: 성바오로딸수도회 여주
사도의 모후 집

회비: 3만원

문의: 김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골롬반 겨울 청년 피정

일시: 1.13(토) 10:00~17:00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39세 신자 / 1만원

신청: bit.ly/ColumbanRetreat01(1.7까지)

문의: (010)3817-0567

2024 성모술술 무료 치유대(對) 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간: 매월 둘째주 금~일(2박 3일)

1.12~14 / 2.2~4 / 3.8~10

문의: (010)3209-3955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5(금) 13:00~7(일) 16:00

대상: 중, 고, 대학, 미혼 젊은이

회비: 10만원

문의: (010)5490-5345

myungkkot@daum.net

몸 신학 피정 [ICPE 선교회]

기간: 1.27(토)~28(일)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대상: 성인 남녀 누구나 (자녀동반가능)

회비: 성인 12만원, 학생 5만원, 미취학

무료 / 문의: (010)3889-1272

일반 알림 | 기타

입소 어르신 모집

(사)안심원 칠곡가톨릭요양원에서는
함께 생활하실 입소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시설급여) 받으신 분

문의: (054)976-812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가야금, 정리수납전문가, 서양화,

연필초상화, 프랑스자수, 칼림바,

우쿨렐레, 캘리그라피, 오카리나,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미술심리상담사 / 신청: 254-6115

가톨릭 요셉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장소: 가톨릭문화관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요셉발건강)

문의: (010)3817-5255

그레고리오성가 수강생 모집(15기)

개강: 1.7(일) 15:00

장소: 공평동 톡쥬베네딕도 베네센터

내용: 이론(15주) 및 실습(30주)

등록: 1.4(목)까지

문의(필수): (010)2805-8504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봉사자모집

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 약사

문의: 256-9494

홈페이지: <http://sungsim94.or.kr>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4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원서접수: 1.3(수)~6(토)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문의: (043)270-0100, 0119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원데이클래스

일시: 1.13(토) 14:00

내용: 향초&차량용 디퓨저

선물세트 만들기 / 대상: 청년

문의: (010)5639-8071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교구 | 대구구 알림

1월 임신부 축복미사

일시: 1.12.(금) 10:00~12:00

장소: 교육원 가동 1층 4회의실

대상: 임신부 (매월 참석 가능)

진행: 기도모임 및 축복 미사

신청(필수): 가정복음화국, 250-3077

동명성당 성령 세미나

기간: 2.17~18 / 24~25

참가비: 5만원

성령기도회장: 배선아 벨라뎃다

입금계좌: 신협 137-007-213234

신청 및 문의: (010)9886-5596

성동성당 사무원 모집(유경험자)

문의: (054)776-1840

칠곡성당 반주자, 지휘자 채용

업무: 주일교중미사 반주, 지휘

연습: 매주 토 19:30

문의: 323-1501 / (010)6256-4319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관덕정 순교자 현양 음악회

일시: 1.19(금) 19:3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무학연수원(신축) 성물 기증

신축중인 무학연수원 성전에 성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봉헌 부탁드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390921-9,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김동진 신부, (010)3127-8188

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모집

모집대상: 초3~중1(24년도 기준)

모집기간: 2.29(목)까지

문의: 김동진 신부,

(010)3127-8188

손상오 신부 화답송 연수,

그레고리오 성가 이론 및 실기

일시: 1.21(일) 14: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1층 음악원

참가비: 1만원

뿌에리 간또레스 합창단원 모집

대상: 초등4 ~6학년

문의: (010)8581-2021

앞산밀 북카페 핫팩 특강

기간: 1.15(월)~2.5(월) 매주 월 11:00

평일 매일 미사 10:30

제목: 루이라벨의 『가치론』

- 미학적가치와 영적가치

강사: 이명곤 요한보스코 교수

하느님 자비의 기도 월피정

일시: 1.2(화) 13:00~16:00

내용: 성시간, 유해친구, 강의, 미사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문의: 팔로티회, (010)3824-0333

가톨릭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매월 셋째 토 월레회: 장소 신학교

맹자강의: 15:00~16:30

월레미사(중국어독서, 복음) 17:00~18:00

1,2,4주(토) 중국어성경 15:00~16:30

문의: (010)2758-0266

715차 성령묵상회(2박 3일)

기간: 1.12(금) 13:00~14(일) 17:00

장소: 성령쇄신봉사회관(월막피정의집)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더 퍼스트

병원 앞 1.12(금) 낮 12:00 출발

문의: (010)3661-8702

영천 나자렛집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집

문의: 현 레나 수녀, (010)2643-1935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http://cord.fatima.or.kr>

문의: 959-8883 / 940-7126

바른동물의료센터

- ▶ 365일 24시간 진료
-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달서구 와룡로 142 (구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별이 빛나는 미술학원

☎ 원장 : 여명래 요한 보스코
☎ 010-2143-9683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23-22, 2층

W월드 국제결혼
www.월드결혼.kr

베트남 | 캄보디아

대표 강정희 켈투르다
010-7428-1566
내당역 3번 출구 성안오피스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정 의·한의원 1등급 병원

재활치료 전인병원

- ☑ 환자중심의 전문재활 프로그램
- ☑ 체질맞춤 한의학 프로그램

1688-7667 대구가톨릭대라병원 입구 전인병원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구독료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구독료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